

Robert Vannoy 박사 , 구약 역사, 강의 26

© 2012, Robert Vannoy 박사 및 Ted Hildebrandt

Isaac/Rebekah 및 Jacob의 초기 생애

E. 이삭

1. 그의 탄생, 창세기 17, 18, 21장

우리는 어제 아브라함에 대한 토론을 마쳤으므로 오늘 오후에는 개요의 4페이지인 대문자 E, 즉 “Isaac” 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삭에 대해 길게 논의하지 않을 것이며 단지 몇 가지 설명만 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7개의 부제목이 있는데 그 중 첫 번째는 “그의 탄생, 창세기 17, 18장, 창세기 21장”입니다. 그의 탄생은 창세기 17장 19절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워 그의 후손을 위한 영원한 언약을 삼으리라.” 그리고 18장에는 그것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면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사라는 자기 뒤에 있는 천막 입구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라는 웃었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년 약속된 시간에 다시 찾아뵐 것입니다. 사라에게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나는 웃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탄생은 창세기 21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니 사라가 잉태하여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정한 때라.”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나이 100세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10살 어렸기 때문에 90세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 이삭이 제물로 바쳐짐, 창세기 22장.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그의 결혼

좋습니다 2. 시트에 “이삭을 바치는 중, 창세기 22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장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고점으로 논의했으며, 이 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논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확실히 이삭의 삶에서 중요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말이죠.

3.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그의 결혼.” 나는 어제 그것을 간접적으로 논의했고 우리는 구속적인 역사적 구절의 전체 사업과 구약성서의 이러한 역사적 구절의 예시적인 사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24장에 대한 몇 가지 설명은 이삭이 수동적이며 그의 아버지가 그의 종을 통해 그의 결혼을 정하고 그 외에도 종이 표징을 구하고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지정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삭의 아내가 되려고 그러나 결혼이 중요한 이유는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를 통해 약속이 계속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브두엘의 딸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으로 종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녀는 기꺼이 하인과 함께 돌아오기로 동의했고, 그녀와 이삭은 결혼했습니다. 이 관계에서 나중에 야렛이 조상이고 아브라함과 나홀이 밀가와 결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브두엘은 나홀과 밀가의 아들이고 리브가는 브두엘의 딸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합니다.

4. 그의 아들들

이제 4. 시트에는 “그의 아들들”, 즉 이삭의 아들들이 적혀 있습니다(창 25:19 이하). 창세기 25장 19절은 창세기의 구조적 구분 중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사십 세에 그 딸 리브가를 아내로 삼았으니” 시리아 사람 라반의 누이인 밧단아람 출신의 시리아 사람 브두엘.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라. 아이들은 그녀 안에서 함께 씨름했고 그녀는 “그렇다면 내가 왜 이럴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여호와께 물으러 갔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게서 나리니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그 해산할 날이 차매 보라 그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첫째가 나온 것은 온몸이 털옷처럼 붉었더라. 그 아우가 나오자 그 손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은 후에 그 이름을 에서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낳았을 때 그 나이 삼십 세였더라 .” 여기서 다시 주목해야 할 점은 리브가가 20년 동안 임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할 때에 나이 사십 세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을 때 그의 나이는 육십 세였다. 그래서 20년 동안 그녀는 불임이었고 약속된 씨앗은 일반적인 자연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을 통해 나온다고 다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절을 보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느니라” 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브가는 그녀의 태에 두 아이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두 나라를 이룰 것이며 아마도 더 중요한 것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5. 이삭에게 언약이 재확인됨 - 창세기 26:1-5

5. “이삭에게 언약이 재확인되니라, 창 26장 1-5절”, “아브라함

때에 먼저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흉년이 들때 이삭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더니” 그랄 에서 .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지시하는 땅에 살라. 이 땅에 한동안 머물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리라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리라.”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반복됩니다. 내 요구와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느니라’” 그리하여 언약의 약속이 이삭에게 재확인되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고 했습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당시 이삭에게 확인된 대로 이 약속의 계열을 가지고 전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내와 아들에게 속은 이삭 - 창 27장

당신 의 시트에는 이삭이 그의 아내와 아들에게 속이는 “27장” 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27장의 일반적인 줄거리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에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가 야곱에게 준 축복은 실제로 야곱에게 속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퇴하자면, 이삭이 여기서 하려고 한

것은 그가 에서를 축복하기로 결정할 때 이전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4장 앞부분에서 그는 에서를 불러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나로 먹게 하라.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내 영혼이 당신을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리브가는 그 말을 듣고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나에게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너희에게 축복하게 하라’ 이제 그것을 우리가 몇 분 전에 읽은 창세기 25장 23절과 비교해 보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민족이 네 태중에 있느니라 두 민족이 네게서 나리라 한 족속이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삭은 실제로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야곱에게 주는 축복은 에서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를 섬기게 하고 열방이 네게 절하게 하라 너는 네 형제의 주인이 되라” 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리브가는 에서를 축복하려는 이삭의 의도를 우연히 듣고 이 속임수를 부추겨 야곱에게 말하며 그에게 말합니다(8절). 나는 거기에서 좋은 염소 두 마리를 낳았습니다.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너는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은 이 모든 것에 대해 그다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그를 느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12절). “그가 보기에 내가 속이는 자로 보이리니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리라” 그의 동생은 털이 많고 매끈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저주가 있도다 내 말을 따르라” 하고 그 손과 목뒤에 새끼 염소 가죽을 붙여 별미를 만듭니다. 그는 자신을 에서라고 표현하는 이삭에게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믿음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셨다

이제 Ellison은 *The Fathers of the Covenant*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그들이 분명히 했던 것처럼 대중적인 격언을 고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방법을 계획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 내 생각에 문제는 이것이 적절한 절차였느냐는 것이다.

레오폴드는 자신의 논평에서 인간의 독창성을 바탕으로 한 신앙의 부적절함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이 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을 실제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삭을 속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물론, 이삭은 두 아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뜻을 좌절시키려고 시도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양측 모두 잘못이 있고, 의심할 바 없이 편애가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을 보면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먹으므로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한 아들을 더 좋아하고, 어머니는 다른 아들을 더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는 에서를 축복하고 싶어하고, 어머니는 야곱의 유익을 구하고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그것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해야 할 점은 인간의 최악된 행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다스리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최종 결과는 야곱을 위해 의도된 축복이 야곱에게 돌아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승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최악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서는 자신의 목적을 다스리시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 속에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축복은 27장 28절과 29절에 있습니다. 이삭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형제들의 주인이시여, 당신 어머니의 아들들이 당신께 절하게 하십시오.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그 축복은 에서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야곱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중 하나인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이 있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는 약속의 반복으로 결론을 맺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런데 이삭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매우 불안해합니다. 33절에

보면 “이삭이 심히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하여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고 했습니다. 네가 오기 직전에 내가 그것을 먹고 그를 축복하였으니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에서가 와서 이삭이 그 일을 깨달은 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에서의 반응과 에서의 “축복”

이제 Ellison은 같은 책인 *The Fathers of the Covenant* 에서 이
시점에서 3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많은 부분에 대한
단서입니다. 믿음의 영웅들. 결국 아내가 옳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순간도 많았을 것이다. 이제 그는 문득 자기에게 온 자가 야곱임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절했습니다. 에서의 눈물조차 그를 감동시킬 수
없었습니다. 비록 그가 35절에서 야곱의 교활함을 언급했지만, 그가 야곱이나
리브가를 책망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는 고의로 기꺼이 그를 다시 축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야곱이 그의 집을 떠나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갈 때 28장의 시작 부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에서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화가 났습니다. 34절을 읽어 보세요. “에서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크고 심히 통곡하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나에게 축복하라 내
아버지에게도 그리하소서 하였더니 그 아버지가 이르되 네 형은 교활하게 와서

당신의 축복을 빼앗아갔습니다.” 36절 끝에서 그는 “네가 나를 위하여 축복을 예비하지 아니하였느냐” 고 말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그의 종으로 삼았으며 내가 그에게 곡식을 공급하였느니라.” 그리고 새 포도주. 그럼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겠니, 내 아들아?’ 에서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 축복할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저도 축복해주세요, 아버지!’ 그러자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39절과 40절에서는 에서에게 주어진 “축복” 을 인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다른 이해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요한 번역 문제가 있습니다. 28절과 39절을 비교해 보면 킹 제임스 성경과 NIV 번역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28절은 이삭이 에서라고 생각하고 야곱에게 준 축복이고, 39절은 나중에 에서에게 주는 “축복” 입니다. 읽어보면 그것들은 매우 똑같습니다. 특히 킹제임스성경에서 읽으면 킹제임스성경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너는 칼을 믿고 살 것이며, 네 형제를 섬기게 될 것이며, 네가 통치권을 얻게 될 때에는 그의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릴 것이다.” 이제 문구는 동일합니다. 하늘의 이슬/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땅의 기름짐, 그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 2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고 했습니다. 39에서; “

너희의 거처는 땅의 기름진 곳에서, 하늘 이슬에서 나는 곳에 있으리로다.”

그는 두 문구를 반대로 바꿉니다. 27과 28이어야 합니다.

차이점은 이 전치사의 번역에 달려 있습니다 . 히브리어에서 그것은 *min*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min* 이 근원의 *min* 으로 이해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분리의 *min* 으로 이해되어야 하는지입니다 . 근원의 *분* 으로 이해한다면 두 경우 모두 그곳에서 에서에게 주어진 축복은 기본적으로 이전에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과 동일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분리의 *분* 으로 받아들인다면 , 당신이 말하는 것은 NIV에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가 사는 곳은 땅의 풍요로움에서 멀고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다.” 달리 말하면, 그것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저주에 가깝습니다. “너의 거처는 세상의 풍요로움에서 멀어질 것이다.” 물론, 에서의 경우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에돔이 되었고, 에돔은 사해 남쪽의 그 광야 길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곳은 황폐한 곳이요, 땅의 기름짐과 하늘 이슬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삭이 한 일이 어떤 의미에서는 첫 번째 구절과 동일한 축복을 주었지만 이 전치사의 사용과 그 의미에 관한 의도에 근거하면 모호함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야곱의 경우와는 정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40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을 믿고 살리라. 그리고 네 형제를 섬기게 될 것이며, 네가 통치권을 얻으면 그의 명예를 네 목에서 떨쳐버릴 것이다.”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과 에돔, 즉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의 관계에 대한 이후의 역사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에돔 사람들을 복종시키고 그들의 영토에 요새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앞뒤로 변동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이스라엘의 멍에를 벗어버릴 수 있었지만, 그러다가 다시 다시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에돔 사람들이 결국 자신들의 영토에서 남쪽으로 쫓겨나는 신구약 중간기 까지 계속되었습니다 . 그들은 유다 남부에 올라와 정착하였고, 마카베오파에 의해 강제로 유대화되었습니다. 즉, 그들은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에돔”이라는 명칭을 지닌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이두메인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현장에 등장한 것도 그 재고가 없었습니다. 물론 헤롯 대왕은 저주받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이런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는 구약의 후속 역사 전체를 거쳐 구약 중간기 를 거쳐 자신이 이두매 사람이었던 헤롯 대왕까지 이어집니다.

이삭의 마지막 날 35:27-29; “야곱은 기랴트 근처 마므레 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머물렀던 아르바 곤 헤브론이더라 . 이삭은 백팔십 세를 살았습니다. 그가 숨을 거두고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니, 그 나이가 많고 늙었더라.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물론 이것은 창세기의 이야기에서 상당히 앞서 나가지만 우리는 이삭의 생애 아래에서 이 시점에서 이런 종류의 주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F. 야곱 베델에서의 야곱

“Jacob”이라는 F. 로 넘어가겠습니다 . 먼저, “벤엘의 야곱” 은 이삭이 속인 사건 직후로 돌아가서 픽업하겠습니다. 28장에서는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집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배경은 27장 41절입니다. “
 에서가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날이 가까왔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큰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리브가가 사람을 보내어 작은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 하여 스스로 위안을 삼는도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 내 말을 듣고 일어나 하란으로 도망하여 내 형 라반에게로 가서 네 형의 분노가 그칠 때까지 며칠 동안 그와 함께 유하라 .
 네 형의 분노가 풀리고 네가 자기에게 행한 일을 잊어버릴 때까지 내가 사람을 보내 너를 거기서 데려오리라. 어찌하여 내가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리요?” 에서가 정말 야곱을 죽였다면 야곱은 살 수 없고 에서의 목숨도 빼앗기고 두 아들을 잃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야곱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반복되는 축복 그렇다면 그녀가 27장 46절에서 이삭에게 한 일이 흥미롭습니다. 46절에서 그녀는 이삭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헷 족속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가 살기에 곤비하였거니와 야곱이 그 땅 여자 중 헷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 인생이 나대로 될까요?” 그래서 그녀는 정말로 야곱의 생명을 걱정했지만 이삭에게 말할 때 야곱이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에 대해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28장 첫 부분에서 야곱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일어나 밧단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브두엘 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그런 다음 그는 이 축복을 반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로 여러 민족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너와 너와 함께한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우거하는 땅을 상속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당신은 약속의 노선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떠나 하란으로 갑니다.

벤엘의 야곱 [야곱의 사다리] 이미 이것을 올렸으나 세대를 다시 보면 여기 리브가가 있고 그의 형은 라반이요 에서와 야곱은 형제라.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가서 결국 라반의 딸인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는데, 이는 당연히

앞서가는 일입니다. 도중에 그는 베엘에 들러 하룻밤을 쉬게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베엘에서 꿈에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내용은 12절에 있고 28장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더라. 그 위에 여호와께서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도 아브라함과 같을지라 땅의 티끌로 퍼지고 네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지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든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희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제 야곱의 삶의 이 시점에서 주님은 아직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한 이 약속을 재확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3대째 야곱에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이 시점까지 그는 에서를 피해 도망하여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자고 있는 동안 그에게 오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시 요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이미 이삭에게 반복했던 아브라함의 약속을 반복하신 다음, 그에 더하여 그분이 그의 삶에 그와 함께하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꿈에 12절을 보면 “사다리가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라고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하나님과 야곱 사이의 교통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천사들은 야곱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야곱은 두려워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야곱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것은 꿈에 나타난 상징의 의미에 관한 최소한의 제안일 뿐입니다. 16절에서 그는 그 약속을 받고 깨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리라” 하고 돌을 가져다가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는다. 19절에서 그는 그곳 이름을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 을 뜻하는 “벰엘” 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20-22절에서 그는 서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사 나는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내가 내가 드릴 것임이니이다.” 반드시 십분의 일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제 Leupold는 당신의 참고문헌 779-780페이지 중간 에 있는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그 번역이 최선의 번역이 아니라고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22절의 시작 부분에 있는 조건문에 아포도시스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21절의 끝이 아니라

차이점이 있습니다. 21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집이 되라.” King James의 번역과 함께 NIV와 NASV의 번역도 있다고 Leupold는 말합니다 . 아포도시스가 신과 흥정하는 값싼 용병 정신을 묘사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전에 배치했다면. 즉, 당신이 이렇게 하면 당신은 나의 신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할 수 있는 22절의 시작 부분에 아포도시스를 넣는다면 구성은 동일할 것입니다. 그냥 와우입니다 . 상황에 따라 가장 좋은 방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와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되리라” 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제 Leupold가 말한 것과는 반대로 , Aalders는 자신의 주석에서 내가 읽은 번역을 선호하며, 그는 그것이 “야곱이 아직 그의 하나님인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는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고 지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정말로 아직도 하나님과 협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전히 어느 정도 이기적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는 아직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온전히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32장 후반부 24-30절까지 그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에 그것은 말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 구조를 보면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로 협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주께서

나를 나타내시면 내가 주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리이까? 나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2. 하란의 해 - 창 29-31 장 2번은 “하란의 해, 29-31장” 입니다.

하란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에 당신이 말할 수 있는 큰 그림을 얻기 위해 강조해야 할 것은 하란에서 씨의 번식에 대한 약속이 열한 아들의 탄생으로 처음으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야곱은 하란으로 가서 결혼하여 열한 자녀를 낳았습니다. 모두 한 아내, 두 아내, 두 첩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열한 자녀였습니다. 그 열한 명의 아이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러니 이 약속, 즉 위대한 씨앗이 하란 사건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야곱, 라헬, 레아 좋아, 돌아가서 이야기를 들으러 그가 도착했을 때, 그는 그의 사촌 라헬을 만나고, 그의 삼촌 라반에게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달을 보낸 후 그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삼촌을 위해 7년 동안 일하기로 동의합니다. 16절에 보면,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눈이 여린 반면 라헬은 아름답고 용모가 아름다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 이르되 내가 네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칠년 동안 너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칠년을 일한 후에 혼인 잔치 때가 이르매 라반이 라헬

대신에 야곱에게 레아를 주었느니라. 21절 이하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라반이 그 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를 베풀니라 저녁때에 그가 그의 딸 레아를 그에게로 데려가매 그가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여종으로 주었더라. 아침에 보니 레아라 그가 라반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라헬을 위하여 너와 함께 섬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당신은 왜 나를 속였습니까?’ 라반이 이르되, 어린 아이를 장자보다 먼저 주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는 이같이 할 수 없느니라. 그 주간을 채우라. 그러면 네가 앞으로 칠 년 동안 나와 함께 섬길 봉사의 대가로 이것도 네게 주리라.’”

적어도 나에게서는 그 이야기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잔치를 벌이고 축하하고 있었는데, “저녁에 그가 레아를 데려가니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여인들은 아마도 베일을 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Leah는 분명히 이 계획에 기꺼이 참여하는 파트너였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야곱은 라헬 대신 레아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주지 않는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물론, 당신은 첫 번째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이해했어야 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라반이 야곱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이 그녀에게 아주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점에서 야곱은 이전에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것처럼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서는 그 반대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일주일 간의 결혼 축하 끝에 그는 첫 번째 아내인 두 번째 아내를 얻습니다. 그렇게까지 발전할 시간은 없습니다. 다음 시간 초에 여기로 오겠습니다. 방금 당신에게 읽어 주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복음주의신학회지*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의 마지막 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Biblical Limericks, Old Testament Stories Reversed"라는 책에 대한 리뷰가 있으며 일부 삽화가 제공됩니다. 다시 이 책은 분명히 구약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희극에 대한 책입니다. 그러나 그 중 하나가 여기 이 리뷰에서 제공됩니다. 이다:

“야곱은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아무런 힌트도 없이 레이첼을 이기기 위해

그거 하나도 안 좋았어.

그리고 라반은 너무 교활해서,

자, 초보자여, 작은 글씨를 읽어보세요.”

Chis Scarborough가 각본을 맡았습니다.

Ted Hildebrandt의

대략적인 최종 편집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가 다시 해설함